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요술 향아리**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좋지 않다는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주제** : 욕심, 인과응보

핵심어 **인과응보, 욕심, 농부, 돌멩이, 요술, 향아리, 사또, 엽전, 아버지**

한국문화
• **목표** : 한국의 그릇인 향아리의 쓰임에 대해 알아본다.
• **요소** : 향아리

한국어
• **목표** : 크기가 다른 돌의 종류에 관심을 가진다.
• **단어** : 조약돌, 돌멩이, 바위
• **표현** : 돌멩이를 골라냈어요.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요술 향아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향아리는 어떤 물건일까요? 그래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곡식이나 소금, 김치 등을 담아 둘 때 향아리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집에도 향아리가 있나요? 향아리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좁은데 비해 중간부분은 배가 볼록하게 부른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향아리는 보통 향아리가 아니예요. 글썄, 무엇이든 두 배로 똑딱 만들어 주는 ‘요술 향아리’래요. 여러분은 이 향아리에 무엇을 넣고 싶나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요술 향아리’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요.

어느 날 농부는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땅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안녕하세요.”

“자네가 웬일로 우리 집에 왔는가?”

“영감님께 땅을 좀 사려고 왔지요.”

농부의 말을 듣고 욕심쟁이 영감은 돌멩이가 많은 제일 나쁜 땅을 팔았어요. 그래도 가난한 농부는 땅이 생겨 기분이 좋았지요.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돌멩이를 골라냈어요.

‘밭에 무엇을 심을까?’

농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지요.

하루는 농부가 돌을 고르고 있는데, 곡괭이 끝에서 뭔가 ‘뽕’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어? 무슨 소리지?”

농부가 땅을 파 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어요.

“웁거니! 마침 쌀 항아리가 없었는데, 잘됐군.”

농부는 신이 나서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여보, 우리 밭에서 큰 항아리가 나왔소. 여기에 쌀을 담아 놓으시구려.”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여보! 여보!”

아내가 농부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농부가 아내에게 가 보니 항아리에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 쌀이 왜 이렇게 많소?”



이야기 들려주기

“모르겠어요. 어제 분명 항아리에 반도 안 차게 쌀을 담았는데…….”

“뭐라고요? 반도 안 차게 담아 두었다고? 그럼, 이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란 말이오?”

농부는 혹시나 하며 항아리에 엽전 하나를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엽전이 두 개가 되었어요. 엽전 두 개를 넣으니 네 개가 되고, 네 개를 넣으면 여덟 개가 되었지요. 어제 밭에서 가져온 항아리는 집어넣기만 하면 뭐든 두 배로 늘어나는 요술 항아리였던 거예요.

농부는 요술 항아리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욕심쟁이 땅 부자 영감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 요술 항아리를 내놓게.”

“네? 그게 왜 영감님 항아리입니까? 제 밭에서 나온 제 항아리이지요.”

“난 자네에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다네. 그러니 어서 내놓게!”



이야기 들려주기

“영감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땅을 팔았으면 땅속에 있는 것도 모두 제 것이지요.”

욕심쟁이 영감 말에 농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좋네, 좋아! 어디 그럼, 자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사또에게 가서 물어보세.”

“좋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는 농부와 부자 영감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깃 향아리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다니! 향아리는 내가 잘 보관할 테니 그만 돌아가거라!”

요술 향아리가 탐났던 사또가 꾀를 낸 거예요. 농부와 부자 영감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사또는 요술 향아리에 엽전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엽전이 두 배로 늘지 뭐예요.



이야기 들려주기

“으하하, 나는 부자다! 부자야!”

기분이 좋아진 사또는 요술 항아리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범아! 아범아! 날 좀 꺼내다오!”

사또 아버지가 아침부터 큰 소리로 사또를 찾았어요. 사또가 깜짝 놀라 소리 난 쪽으로 가 보았어요. 그런데 글썽 사또의 아버지가 요술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 거기엔 왜 들어가셨어요?”

“못 보던 항아리가 있어서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 빠졌지 뭐냐?”

사또가 아버지를 항아리 밖으로 꺼냈어요.

그때였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범아! 아범아! 날 좀 꺼내다오!”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항아리 안에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또가 아버지를 항아리 밖으로 꺼냈어요.

“아이쿠! 도대체 어느 분이 제 아버님이시죠?”

사또의 말에 두 명의 아버지가 서로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야 당연히 내가 진짜지!”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지.”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 후,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 했던 사또는 두 명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대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농부는 옥심쟁이 영감에게 땅을 샀는데, 땅에 무엇이 많았나요?

그래요. 돌멩이가 많았어요. 농부는 밭의 돌멩이를 곡괭이로 골라냈죠. 돌은 크기에 따라 작은 조약돌부터 돌멩이, 큰 바위도 있어요. 밭에 돌이 많으면 농사짓기가 힘들고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미, 곡괭이, 삽과 같은 농기구로 돌멩이를 모두 골라내야 한답니다.

농부가 돌을 고르다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지요. 농부는 그 항아리에 무엇을 담아두었나요?

네, 쌀이었죠. 한국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담거나 저장할 때 항아리를 주로 이용했어요. 쌀, 물, 술을 담아두기도 하고, 고추장, 된장, 김치의 발효를 위해 항아리를 사용했지요. 항아리들이 모여있는 장독대가 있었는데, 할머니들은 그곳을 쓸고 닦으며 소중하게 지켰답니다. 한국의 항아리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요술 항아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술 항아리 덕분에 착한 농부는 부자가 되었지만, 욕심 많은 사또는 아버지를 두 분이나 모시게 되었어요. 남의 물건을 탐낸 사또는 욕심부린 것을 가슴 깊이 후회했어요. 지나친 욕심, 잘못된 욕심은 결국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욕심내지 않고 친구들과 서로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